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3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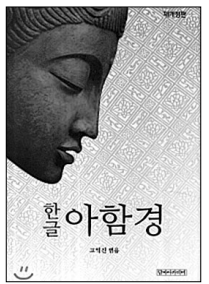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법성계 강해	김상백	운주사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불서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7	붓다순례	지현	불광출판사
3	뉘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용	용화	8	붓다의 과학이야기	김성철	참글세상
4	수트라(여시아독)	범일	김영사	9	오도에서 열반까지	진중철성	사유수
5	사랑이 온대(화해와 치유의 힐링 그림편지)	이영철	해조음	10	아함경 (전2권)	학담	한림사



붓다 사유체계 따라 원문 그대로 옮겨

한글 아함경

고익진 편 | 담마야카데미 펴냄 | 3만원



故 고익진 교수가 한국불교학계에 남긴 업적은 눈부시다. 가장 큰 업적은 당시만 해도 불모지였던 초기불교학 연구에 불을 당긴 것이다. 의대에 재학중이던 그는 불교계에 입문한 이후 1970년대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라는 석사논문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렇고 교수는 1974년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80년대에는 동국대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을 맡아 한국불교 관련 문헌을 시대순과 저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한국불교학 연구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1981년 한글로 가는 보살화란 의미가 담긴 '일승보살화'를 창립해 일상속 신생활에도 기울리 하지 않았다. 고 교수는 비록 떠났지만 일승보살화는 30년이 흐른 아직도 정기법회와 수행을 계속하며 그가 남긴 창립 정신을 충실히 계승 중이다.

가 생전에 남긴 큰 업적인 대표작인 <한글 아함경>이 새로 개편돼 나왔다. 1981년 첫 출간된 이 책은 당시만 해도 한국불교학 연구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아함경은 소승경전으로 치부되던 때였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소승불교라 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일찍이 19세기부터 서양 불교학계에서는 팔리어 '니카야'를 번역하고 연구했다. 오랫동안 아함경 연구를 지속한 고 교수가 깨달은 것은 대승불교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아함경이란 사실이었다. 생소했던 아함경을 주목받게 만든 고 교수의 이 책이 발간된 뒤부터 불교계에 아함경 연구가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폭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이때부터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 교수는 생전에 한국불교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아함경은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 살던 사카무니 붓다가 45년간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와 가르침을 모은 것이다. 비유나 우화가 많이 등장하고 대화체로 써 있어 읽기 쉬워 보이지만, 내용은 삶의 조건과 질곡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해결책 등을 말하고 있어 난이도를 달리해 묻고 답한 것이므로

그 입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색해 가는 방식으로 읽으면 무리가 없다.

책은 생로병사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고통이라고 본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것의 소멸, 즉 열반이라는 상태가 있다. 또 거기 가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四聖諦)라고 한다. 고통으로서의 삶이 열반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는 원인을 가지고 상관하는 관계,

1981년 첫 출간 후 재개정판 펴내
글자크기 흐름에 맞게 재구성해 편집
왜곡 소지 용어는 한문으로 사용

즉 연기(緣起)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저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소멸한다는 것을 알면 번뇌와 괴로움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은 붓다가 새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실로서, 그는 지혜나 눈이 있는 자는 다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진리는 경험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신앙이나 능력을 가진 자만 알 수 있다면 이미 보편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함경에는 붓다의 사상과 삶의 이야기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 교단의 모습, 즉 수행자의 공동체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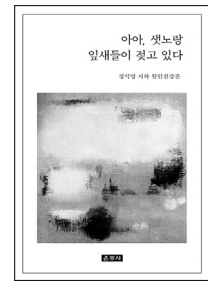
한편 이번 재개정판은 고 교수가 창립했던 수행모임인 일승보살화 회원들이 맡았다. 이들은 글자 크기와 배열을 현대의 흐름에 맞게 재편집해 우선 가독성을 높였다. 내용에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의미나 왜곡될 소지가 있는 용어는 그대로 한문을 사용했다. 한문본 및 팔리어본 등과 일일이 대조해 바로잡는 꼼꼼하고 어려운 작업을 감내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편찬 작업이 또다른 수행이라 여기며 묵묵히 고 교수의 향훈을 지켜내려는 일승회 회원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치 부처님이 열에서 살생을 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붓다의 사유 체계에 따라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이 책은 그래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고 교수는 우리곁을 떠났지만 그가 품소 남긴 가르침을 실천행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바로 이 책 속에 그의 진한 땀방울이 살아숨쉬기 때문이 아닐까.

순수한 감성을 깨달음의 지혜로...

아아, 셋노랑 앞새들이 젓고 있다

-정석영 시와 월인천강론

정석영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암자는 구름을 이고 조는 듯 한가롭고 / 갈빛은 날로 고와 번져가는 노을인데 / 뽀르르 다람쥐 한 마리 놀다 간 빈 트랙 // 부처님 님으신 스님 부처님처럼 앉았다가 / 착한 아기 왔다면 서 주시는 머무 한 송이 / 께야만 알알에 서린 전설 같은 산내음 <절간>

이 나고 그윽히 향기가 짙어집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이번 시집은 인류의 삶에서 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퇴화하는 인간의 감성과 인간성을 걱정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저 많이 배워 많이 알고 많이 모아 많이 가지게 교육의 성과이고, 인생이 목표가 되어버렸고, 스스로 가슴으로 느끼고 새겨야 할 시를 이론적인 학습과 논리적인 분석으로 주입시키고 있는 그릇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시가 시의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적 환경을 걱정하는 시집이다.

인류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모임 '월인천강회'의 회장인 저자는 시의 기능이 회복돼 교육이 살아나고 인간이 살아나 상생의 시대 열리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성숙과 자아완성의 도를 이룩하여 만유 위에 우뚝이 절대(絶對)로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시의 기능회복을 위해 책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일목요연하게 새겨 읽고 넘어갈 수 있게끔 두 쪽 이하의 시에 한해서는 펼쳐진 양면에 올렸다. 저자는 “백편의 시를 외우기보다 열편의 시를 읽는 게 낫고, 열편의 시를 읽기보다는 한 편의 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게 열 번 낫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인 7부에서 월인천강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월인천강론은 돌이 아닌 시와 선을 통해 인류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자는 교육론이다.

캔버스에 펼쳐진 그림일기... 힐링 글 그림 200여개

사랑이 온다

이영철 지음 | 해조음 펴냄 | 1만5천원



“천국이 없으면 자옥도 없듯 밝음이 없으면 어두움도 없듯/ 성공이 없으면 실패도 없듯 가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듯/오지 않으면 갈 일도 없듯 눈물이 없으면 웃음도 없듯/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것을 결국 나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이 찾아오면 도망치거나 소리 질러 내쫓지 않고/ 함께 차도 한 잔 마시고 창을 열고 하늘도 보여준다/같이 노래도 듣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친구로 대해준다.”

해민 스님의 베스트셀러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삽화를 그렸던 이영철 화가가 펴낸 그림일기다. 이번엔 입장이 뒤바뀌었다. 해민 스님이 추천사를 한국어와 영어로 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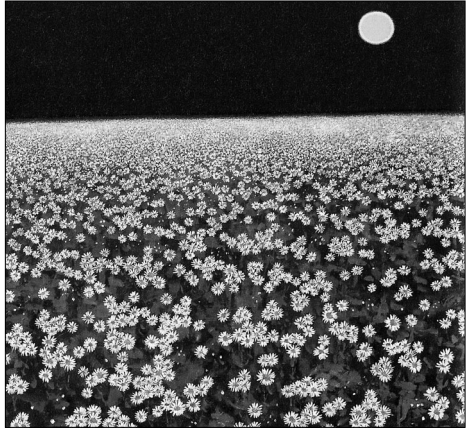
해민 스님은 “우리가 이 화백의 그림을 보고 행복할 이유는 따듯한 그림들, 특히 봄을 계속 그려나가고 싶다는 그의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그린 꽃은 시들지 않고, 그린 봄날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의 이유가 너무 멋집니다. 이영철 화백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그림움, 사랑, 꿈, 희망은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 꽃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고 평했다. <사랑이 온다>의 저자 이영철 화가는 삶의 작고 낮은 곳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적 언어로 그리고 쓰는 작가다.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그림을 보여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책 장 어느 곳을 펼쳐도 아름다운 그림과 편지 같은 글을 만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저자 고유의 감성이 가득 담긴 순수하고 동심어린 그림과 사랑과 희망, 용서와 배려, 용기와 화해를 담은 치유의 글이 만나 잔잔하고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준다.

이 화가 특유의 독특한 화법을 캔버스에 펼친 그림 177점과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잠언형식의 편지 140편이 실려 있다.

그림 속에 담긴 사랑 및 동심과 가파른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시적 형식에 기댄 함축적 글들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찾게 해준다.

그동안 저자가 그려온 자연과 동심, 인간의 순수 원형들이 고스란히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그대의 꽃바다, 이영철 작

밝고 아름다운 그림 속에 조용히 숨쉬는 인간과 자연에 관한 애정 넘치는 안목을 발견하면 저절로 사랑이 오고 행복해지는 마법에 걸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음속에 고요한 잔잔함을 불러일으켜 주는 이 책을 읽고나면 마음을 열고 긍정과 배려로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 동화나 마법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연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243-6333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를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속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